

천하제일사료

하계수련회 개최



천하제일사료는 지난 8월 26일~28일 100여명의 영업관련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2010년 영업 하계수련회를 경상북도 팔공산 온천관광호텔에서 가졌다.

특히 이번 수련회에서는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역임한 유태영 박사의 경험이 녹아있는 주옥 같은 강연이 있었다. 유 박사는 강연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를 강조하면서 긍정을 선택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해 지역부장의 마음에 불씨를 지폈다.

천하제일사료 윤하운 사장은 “함께 하면 더욱 빛나고 집단전체를 닦아가게 된다”며 단합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다. 또한 거안사위(居安思危)를 덧붙여 “잘되고 있다는 마음으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하자”며 결의의 시간도 가졌다.

수련회에 참석한 이재인 지역부장은 “팔공산 정상을 등반하는 것은 매우 힘들었지만, 정상에 올라갔을 때 벅찬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며 “천하제

일사료와 함께 이 같은 성취감을 느낄 고객을 위해 고객성공의 초석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천하제일사료는 이번 하계수련회에서 올해 판매량 120만 톤 달성을 위한 결의를 다지며, 업계 최초로 판매량 200만 톤 달성을 선점하겠다고 밝혔다.

(주)카길애그리퓨리나

양계 캠페인 실시



(주)카길애그리퓨리나(대표이사 이보균)는 지난 9월 28일 경기도 분당 소재 본사에서 ‘기본을 넘어, 고객 속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양계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번 캠페인은 새롭게 선보이는 산란계, 오리 신제품과 서비스로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목표로 10월부터 시작하여 내년 1월까지 4개월간 진행된다.

양계사업본부장 김진형 전무는 회의 시작에서 “작년 양계캠페인을 통해 고객을 이해하며 기본을 다졌다”며 “올해는 새롭게 조직된 양계팀이 신

제품을 가지고 고객 속으로 들어가서 더욱더 차별화된 가치를 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계 마케팅 서상훈 박사는 “현재 오리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맞추어 육종개량 및 새로운 사양 환경을 고려하여 퓨리나 하이웰 오리프로그램을 출시하게 되었다”며 “이번 하이웰 오리프로그램은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오리고기 소비가 증대함에 따라 오리 체내 영양소 이용율을 감안하여 아미노산과 에너지의 최적화 설계로 조기에 출하하면서 육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많은 기술력이 담겨져 있다”고 밝혔다. 또 “초기 유전력을 극대화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울트라 초이프로그램을 통하여 산란계 성적을 좌우하는 육성계 체중관리 서비스를 강화, 고객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데 활동을 집중하자”고 말했다.

퓨리나 양계 전 조직은 캠페인 기간 동안 현장 고객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여 고객 속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갈 것을 다짐했다.

근육테크

구 (주)근육에서 상호 변경

근육테크가 영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 1일부로 구 (주)근육에서 근육테크로 상호를 변경했다. 주소, 전화 및 팩스번호는 전과 동일하다.

- 주소 : 충남 논산시 은진면 토양리 280-12
- 전화 : (041)742-1904
- 팩스 : (041)742-4572

(주)고려비엔피

중동지역 수출 개시

(주)고려비엔피(대표이사 송기연)가 중동지역으로 동물약품 수출을 시작했다.

고려비엔피는 지난해 2월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장실사 합격을 신호탄으로 그동안 까다로운 등록절차를 마무리하는 등 수출절차를 밟아왔다.

이에 지난 9월 10일에는 첫 수출물량을 선적했다. 이번에 수출하는 제품은 액상 항생제(메타플루 10% 액), 영양제(바이탈코러스포르테), 소독제(라이프라인, 라이프가드-정), 주사제(알파키모-주) 등이다. 금액으로는 20만달러 상당이다.

다음달에는 양계백신을 수출키로 예정돼 있어 중동 수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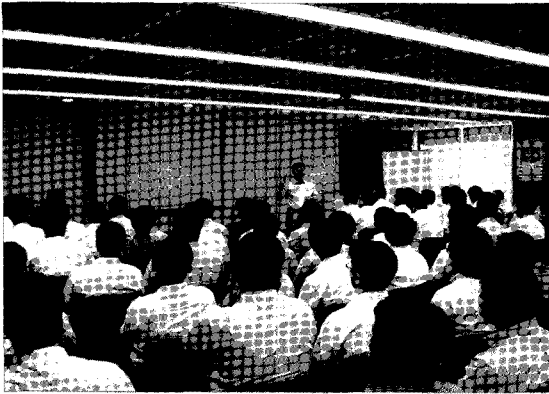
(주)고려비엔피는 앞으로 수출시장에 매진, 국내 동물약품 우수성을 세계에 알려나간다는 방침이다.

CJ Feed

‘CJ Sales Workshop’ 실시

CJ제일제당 사료BU(BU장 박호인)는 지난 8월 20일 ‘CJ Sales Workshop’을 통해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역량개발 교육을 시행했다.

이날 Workshop은 영업 프로세스와 채권프로세스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졌으며 수준별 맞춤교육으로 “어느 때보다도 효율적이고 가치 있었던



교육이었다"며 교육에 참석했던 이강철 지구부장은 평했다.

이날 박호인 사료BU장은 "고객이 바라는 영업사원은 바로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영업사원"이라며 고객에게 인정받는 영업사원으로 거듭나 줄 것을 당부하며, "남은 하반기에도 '한다면 한다'는 강인한 실행력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교육간 격려 메시지를 전했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장재운 부장은 "CJ교육의 목표는 현장 영업인력의 역량개발을 통해 고객과 CJ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성과지향적 교육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에서 통하는 OnlyOne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여 글로벌 축산회사 '라는 비전달성에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CJ제일제당 사료BU는 금년도 중점추진사항을 '교육훈련 강화'로 선정하고 적극 시행하고 있다. 특히 CJ사료만의 표준화·통일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회사의 비전에 걸맞는 조직원의 행동양식과 규범을 숙지케 하고, 여기에 축종별 전문성 교육을 통한 컨설턴트급 전문인력을 배출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굽네치킨

아이낳기 좋은기업으로 선정



굽네치킨(대표이사 홍경호)이 지난 9월 16일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 A홀에서 보건복지부와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주관으로 열린 '제1회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현재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점 1개 개설당 평균 4.5명의 고용창출을 하면서 국가적 최대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태에서 굽네치킨이 저출산 사회에서 아이낳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됨으로써 좋은 기업 이미지를 갖게 됐다.

굽네치킨의 경우 직원이 둘째자녀 출생시 1천만원, 세째자녀 2천만원, 네째이후부터 매회 출생시 1천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